

한국 최초 신문연재만화 「멍텅구리」의 서사 구조와 문화사적 의미 연구*

장우리**, 김병준***, 전봉관****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연재만화 시리즈인 「멍텅구리」의 서사 구조와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팀은 우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멍텅구리」의 정확한 서지정보를 파악하고 744건에 달하는 연재물을 수집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품의 서사 구조의 전모를 확인하고, 각 에피소드에 드러난 식민지 조선의 시대상과 문화 지형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1920년대라는 격변기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제도적·사회적 변화가 멍텅의 일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대문화와 전통문화의 충돌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멍텅구리」식의 독특한 발언이 엿보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조명해, 이제까지 주로 오락 만화, 코믹 만화로 인식되었던 「멍텅구리」에 내재된 제국주의와 억압적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 근대문화와 제도가 억압적으로 이식되는 양상을 포착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그려진 연애와 신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봄으로써, 변화하는 가족 관계와 가부장제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네칸만화 「멍텅구리」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당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식민지 현실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문화의 다층적 면모와 그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멍텅구리」의 만화사적·문화사적·언론사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멍텅구리, 네칸만화, 시사만화, 일제강점기, 근대문화

* 본 연구는 '재단법인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석사과정, woori.jang@kaist.ac.kr (제1저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조교수, bjkim@byungjungkim.com (공저자)

****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junbg@kaist.ac.kr (교신저자)

제출일: 2024년 8월 10일 수정일: 2024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29일

I. 서론

신문 시사만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 만평 및 저널리즘의 도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왔다.¹⁾ 그중에서도 기승전결 구조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서사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네칸만화는 한국에서 100년 가까이 여러 신문에 연재되며 큰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10월 13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멍텅구리」 시리즈를 시작으로 네칸만화는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이 시리즈는 다양한 시사 풍자만화의 초석이 되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멍텅구리」 시리즈는 한국 만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해외 만화의 번역이나 변안이 아닌 독창적 창작물로서, 만화라는 장르에 대중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법적으로 「멍텅구리」는 네 칸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중심인물의 반복 등장이라는 장치로 서사 구조의 참신함을 확보했으며, 동일한 만화 시리즈가 한 일간지에서 10여 년에 걸쳐 연재되며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소비되는 전례 없는 흥행을 이뤄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은영은 「멍텅구리」가 표현 기법과 서사 구조, 상업성을 통한 대중화의 측면에서 완전한 ‘근대만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²⁾

만화사 및 근대문화 연구자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희소하고 소중한 자료로서 네칸만화에 주목해 왔다. 정희정은 식민지 근대 도시 경성에서 주인공이 경험한 구체적인 일상이 이미지로 재현된 방식을 「멍텅구리」를 통해 살펴봤다.³⁾ 또 하종원은 그간 코믹 만화로만 여겨지던 「멍텅구리」의 서사 속에서 당대 조선인의 의식과 태도, 정서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읽어내려 시도했다.⁴⁾ 서은영은 기획 상품으로서의 네칸만화가 대중적 흥행을 할 수 있게 만든 만화적 장치와 소재, 캐릭터에 주목해 그 장르적 특성을 분석해, 일제강점기 신문 네칸만화는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 높은 사료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⁵⁾

그러나 오래되고 방대한 만화 자료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 서지정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시리즈 전체가 아

1) 하종원,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지형과 전망: 정치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610-611쪽.

2) 서은영, 「한국 ‘만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2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117-118쪽.

3) 정희정, 「만화 《멍텅구리》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제43호, 한국미술연구소, 2016, 179-206쪽.

4) 하종원,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지형과 전망: 정치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609-643쪽.

5) 서은영, 「코믹스(Comics)의 기획과 대중화: 신문연재만화 〈멍텅구리〉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73-304쪽.

닌 일부 연재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시리즈 전체를 놓고 총체적인 의미를 분석한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와 원본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1920년 창간호부터의 조선일보 기사를 디지털화한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⁶⁾에 공개된 자료는 신문 한 면이 173킬로바이트(KB)로 해상도가 낮은 탓에 혼란된 연구자도 「멍텅구리」의 대사를 정확히 읽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뚝뚝다’, ‘뿔뿔땀’, ‘군던지스럽다’ 등 사용된 단어가 현대어와 다른 경우도 많고, 원문의 띄어쓰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내용 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더 쉽고 정확하게 만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우선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탐지 모델인 ‘YOLOv5_FPC’를 개발·활용하여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1920–1940)의 47,777건 이미지 파일에서 1,040건의 네칸만화 객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⁷⁾ 이후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신문 한 면에 18.2메가바이트(MB)에 달하는 고화질 데이터를 확보했고, 「멍텅구리」의 대사를 현대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때 해석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멍텅구리」 연재 100주년을 맞는 2024년 10월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연구팀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멍텅구리」 연재물 전수를 수록·주해한 단행본 출간도 준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멍텅구리」 연구사에서 결여돼 있었던 세 가지 핵심적 문제를 구명하려 한다. 첫째, 이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 논문별로 상이하게 파악되었던 「멍텅구리」 시리즈의 서지 정보를 확정하고, 자료의 낮은 해상도, 현재와는 다른 표기법 등의 문제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멍텅구리」 시리즈의 내용을,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 확정하고, 원문과 함께 현대어 번역을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와 단행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사에서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멍텅구리」의 ‘시사만화’로서의 성격과 ‘코믹 만화’로서의 성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음을 만화의 서사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 한다. 연재 1회부터 192회까지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장하경의 연구는 「멍텅구리」 시리즈가 “당대의 시대상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⁸⁾

6)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 (검색일자: 2024년8월1일)

7) S. Lee, B. Kim, and B. G. Jun, "Automatic Detection of Four-Panel Cartoon in Large-Scale Korean Digitized Newspapers using Deep Learning",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 Vol. 10, No. 36, 2024, pp. 1–15.

8) 장하경, 「멍텅구리」의 이야기 기법, 『한국학보』 제119호, 일지사, 2005, 174–191쪽.

이를 비판한 정희정은 “세련되게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⁹⁾ 이 논문은 다양한 맥락의 서사 분석을 통해 「명팅구리」 시리즈가 어떻게 억압적 국가권력과 강압적으로 이식된 근대 제도를 우회적이고 해학적으로 풍자했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해명하려 한다.

셋째, 이 논문은 최명팅과 신옥매의 연애, 가정 생활과 관련된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근대의 일상사, 여성사 연구 자료로서 「명팅구리」 시리즈의 가치를 해명하려 한다. 표면적으로 최명팅은 옥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전차에 부딪히고, 개에 물리고, 경찰에 구류되는 등 갖은 고초를 다 겪는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명팅은 옥매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 행동하지만, 옥매의 행동이나 말에 마음이 상하면, 옥매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사는 식민지 시대 새롭게 등장한 근대문화로 인식되었던 ‘자유연애’가 전근대적 남성중심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논문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서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언어 기반 서사인 설화나 소설과 달리 만화는 ‘대사’와 ‘지문’뿐만 아니라 ‘그림’과 ‘연출’ 역시 서사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명팅구리」의 텍스트 확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방대한 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논의의 일관성과 깊이를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그림’과 ‘연출’을 서사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 확정과 문화사적 의미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 부득이 ‘그림’과 ‘연출’을 다루지 못했지만,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그림’과 ‘연출’ 역시 서사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II. 「명팅구리」 시리즈의 서사 구조와 창작 방식

1. 텍스트 확정과 서사 구조의 특징

「명팅구리」는 1924년 10월 13일부터 1933년 8월 2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장기 연재 만화 시리즈로 총 12개의 하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명팅구리」 시리즈가 단순히 당대의 인기 콘텐츠를 넘어 높은 역사적·문화사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오래되고 방대한 만화 자료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 서지 정보 충돌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선행 연구들은 시리즈

9) 정희정, 「만화 《명팅구리》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제43호, 한국미술연구소, 2016, 179-206쪽.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일부 연재물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가 체계적인 네칸만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탓이라고 보고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지원으로 확보한 고화질 디지털 신문 자료를 본 연구팀이 개발한 이미지 탐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검색해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다수의 미발견 연재물을 확인하고, 「멍텅구리」의 연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해 데이터베이스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 ‘YOLOv5_FPC’의 원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YOLOv5_FPC는 You Only Look Once Version 5 (YOLOv5)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네칸만화 객체 탐지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다. 이 모델은 4x1 행렬과 2x2 행렬 구조의 네칸만화를 모두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일 단계 객체 탐지 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빠른 탐지 속도를 제공한다.

모델 학습을 위해 19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다양한 네칸만화 이미지 161개를 수집하여 훈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훈련용(113개), 검증용(24개), 테스트용(24개)으로 무작위 분할되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0.708의 신뢰도 임계값에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 0.97의 높은 F1 점수를 달성하였다. 이는 YOLOv5_FPC 모델이 네칸만화 탐지에 있어 정밀도와 재현율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정확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YOLOv5_FPC 모델의 네칸만화 탐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YOLOv5_FPC 모델의 네칸만화 탐지 과정

이 과정을 통해 YOLOv5_FPC 모델은 대규모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에서 효율적으로 네칸만화를 탐지하고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본 연구팀은 1920년부터 1940년까지의 조선일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총 47,777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35개의 파일에서 5건의 중복 포함 1,040개의 네칸만화 객체를 탐지하였으며, 이 중에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멍텅구리」 연재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멍텅구리」 시리즈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 만화사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새롭게 조사된 「멍텅구리」 서지정보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실제 연재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당시 이 만화가 가졌던 영향력의 범위를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앞으로 관련 후속 연구에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제강점기 대중문화와 사회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이 확인한 각 시리즈의 제목과 연재 기간, 회차는 [표 1]과 같다. [표 1]은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에서 제공한 고해상도 디지털 신문 자료를 'YOLOv5_FPC'에 입력해 발견한 자료를, 연구진이 연재 번호와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정리한 것으로 <가난살이> 연재 초반부 등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실된 일부 연재분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멍텅구리」 연재물을 담고 있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희정이 정리한 서지사항¹⁰⁾도 함께 표시했다.

[표 1] 각 시리즈의 제목과 연재 기간, 회차

	시리즈명	연재일	마지막 연재 번호	정희정 논문	실제 연재 회차
1	헛물켜기	1924.10.13. ~ 1924.12.08.	56	48	55 ¹¹⁾
2	연애생활	1924.12.09. ~ 1925.06.13.	189	181	182 ¹²⁾
3	자작자급	1925.06.14. ~ 1925.10.22.	85	87	88 ¹³⁾
4	가정생활	1925.10.23. ~ 1926.02.01.	97	102	102 ¹⁴⁾
5	세계일주	1926.02.02. ~ 1926.08.04.	145	148	148 ¹⁵⁾
6	꺼떡대기	1926.08.14. ~ 1926.09.12.	26	18	19 ¹⁶⁾
7	가난살이	1926.10.□□~ 1926.12.11	51	50	35 ¹⁷⁾

10) 정희정, 앞의 논문, 183쪽.

8	사회사업	1926.12.12. ~ 1927.02.18.	43	50	49 ¹⁸⁾
9	학창생활	1927.02.21. ~ 1927.03.11.	11	12	12 ¹⁹⁾
10	또나왔소	1927.08.09. ~ 1927.08.20.	11	9	9 ²⁰⁾
11	모던생활	1933.02.26. ~ 1933.03.02.	5	미언급	4 ²¹⁾
12	기자생활	1933.05.29. ~ 1933.08.02.	43	미언급	41 ²²⁾
합계			744회		

선행 연구에서는 10번째 시리즈 <또나왔소>가 포함된 목록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목록도 있다. 그러나 연재가 6년 가까이 중지되었다가 1933년 연재가 재개된 10번째 시리즈 <모던생활>과 11번째 시리즈 <기자생활>은 본 연구에서 처음 찾은 시리즈이다. 본 연구에서 찾은 자료의 숫자와 정희정의 논문에서 찾은 자료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한 서지사항에서 허점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 11) 연재 번호 56회로 종료되지만, 26회 연재 번호가 누락돼 실제 연재 횟수는 55회이다.
- 12) 연재 번호 189회로 종료되지만, 110~119회 연재 번호 누락, 28회, 136회, 146회 연재 번호가 중복돼 실제 연재 횟수는 182회이다.
- 13) 6월 13일 189회 '도망'으로 <연애생활> 연재가 끝나고, 6월 14일 190회 '후회'로 <자작자급> 연재가 시작된다. 이어진 번호로 3회 연재된 후 6월 17일 네 번째 연재부터 '3회 상공'으로 <자작자급> 시리즈 번호가 부여된다. 연재 번호 85회로 종료되지만, 17회와 28회가 각각 두 번씩 중복 게재된 탓에 실제 연재 횟수는 총 88회이다.
- 14) <자작자급>이 85회로 연재 종료된 다음날인 10월 23일 <가정생활> 첫 회차 '가정 얘기'로 넘어가는데, 1회가 2회로 잘못 표기되었다. 연재 종료 번호는 97회이나 연재 번호가 36회, 72회, 78회, 85회, 94회, 95회 등 6차례 중복 게재돼 실제로는 총 102회 연재되었다.
- 15) 연재 종료 번호는 145회이나 42회 연재 번호 누락, 51회, 75회, 77회, 82회 등 4차례 연재 번호가 중복 게재돼 실제로는 총 148회 연재되었다.
- 16) 마지막 연재 번호는 26회이다. 8월 14일 첫 연재를 시작한 뒤 9회가 한 차례 중복 게재되었다. 16회 '에헴'(8월 31일) 이후 24회 '특별한 일'(9월 9일)까지 8회차가 연재본 신문 데이터베이스 유실로 확인이 불가하다. 26회 '모주회장'(9월 12일) 이후 연재본 역시 신문 DB 유실로 확인할 수 없다.
- 17) <꺼떡대기> 연재 중이었던 9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 디지털 신문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꺼떡대기> 연재 마무리와 <가난사리> 연재 시작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난사리>는 13회 '전당포로'(1926.10.28.)이며, 마지막 연재 번호는 51회이나, 그 사이에도 누락이 여러 건(14회, 15회, 20회, 48회) 있어 현재 확인 가능한 연재는 총 35회분이다.
- 18) 마지막 연재 번호는 43회이지만, 1927년 1월 1일~4일에는 <새해 맞는 명탕구리>라는 신년 특별 에피소드가 총 3회 연재되었고, 1차례 누락(19회)과 4차례 연재 번호 중복(26회, 27회, 30회, 34회)으로 총 연재 횟수는 49회이다.
- 19) 마지막 연재 번호는 11회이나 8회차가 중복 표기되어 총 12회 연재되었다.
- 20) 5개월 만에 연재가 재개되었다. 마지막 연재 번호는 11회이나 7~9회 누락과 10회 중복으로 총 9회분이다.
- 21) <또나왔소> 이후 6년 만에 연재가 재개되었다. 마지막 연재 번호는 5회이나 2회차 연재물이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되었고, 5회 이후에도 누락되어 추가 확인이 불가하다. 확인 가능한 연재물은 총 4회분이다.
- 22) <모던생활> 연재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연재가 재개되었다. 마지막 연재 번호는 43회이지만, 8회 연재 번호 중복, 13회, 38회 연재 번호 누락, 41회 연재물 유실 등으로 총 41회 연재본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조선일보에서 간행한 사사(社史)에서조차 “「멍텅구리-헛물켜기」는 1924년 11월 30일까지 48회가 이어졌고(……) 「멍텅구리-학창생활」편까지 장장 2년 5개월간 계속된 후에 1927년 3월 11일 막을 내렸다”²³⁾, “「멍텅구리」는 (……) 1927년 3월 11일자까지 총 501회로 막을 내렸다.”²⁴⁾와 같이 서지사향을 틀리게 기술해 놓았다.

이렇게 텍스트를 확정하면, 본격적인 서사 구조 분석이 가능해진다. 각 시리즈는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주제와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연재 횟수와 기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독자들의 반응, 그리고 작가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멍텅구리」 시리즈는 주인공 ‘최멍텅’이라는 충청도 만석꾼 집 외아들의 다소 우스꽝스러운 일상과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각 시리즈별 주요 내용 및 서사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헛물켜기

멍텅이 기생 옥매를 짝사랑하며 벌이는 헤프닝을 그린다. 슬랩스틱 코미디 요소가 강하며, 당시 기생 문화와 신분 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2) 연애생활

옥매와 꿈에 그리던 연애를 시작한 멍텅이 경사를 기념하려고 돈을 잔뜩 쓰지만 번번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연애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 양상이 드러난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식한 ‘신문화’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진다.

3) 자작자급

멍텅이 여러 직업을 거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보려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다. 당시 물산장려운동의 영향과 함께, 식민지 경제 구조 하에서의 조선인들의 직업 생활상을 보여준다.

4) 가정생활

멍텅과 옥매 사이에 아들 똥똥이가 태어난 후의 신혼 생활을 그린다. 변화하는 가족 관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며 실제 사건들을 에피소드에 녹여내 당대 사회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5) 세계일주

멍텅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모험을 그린다. 방문한 나라와 도시에 대해 정

23)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민족과 함께 한 세기(上)』, 조선일보사, 2020, 164쪽.

24)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민족과 함께 한 세기(인물·자료)』, 조선일보사, 2020, 32쪽.

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국제 정치 상황을 해학과 풍자 속에 담아 소개한다.

6) 끼떡대기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멧렁이 우쭐대며 벌이는 해프닝을 그린다. 서구 문물에 대한 맹목적 동경과 그로 인한 문화적 충동을 풍자한다.

7) 가난살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 멧렁 가족의 생활을 그린다. 식민지 시기 서민들의 빈곤한 삶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8) 사회사업

멍텅이 다양한 사회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다.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 관계를 엿볼 수 있다.

9) 학창생활

멍텅이 뒤늦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그린다. 식민지 교육 제도와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을 반영한다.

10) 또나왔소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리즈로 멧렁의 일상적 해프닝을 그린다.

11) 모던생활

6년 만에 재개된 시리즈로, ‘인텔리’가 된 멧렁이 ‘카페’에서 경험한 퇴폐 문화를 풍자한다. 1930년대 경성의 환락 문화와 유흥 문화를 비판한다.

12) 기자생활

멍텅이 신문기자가 되어 벌이는 해프닝을 그린다. 당시 언론계의 실태와 사회 문제들을 풍자한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와 설정을 통해 「멍텅구리」는 1920~3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식민지 현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서사적 특성은 해학과 풍자의 절묘한 조화다.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그 이면에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꼬집는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다. 또한 ‘을축년

대홍수’, ‘조선기자대회’, ‘죽침정 단두(斷頭) 유아 사건’ 등 실제 사건들을 소재로 활용하여 현실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당대 경성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충돌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각 시리즈는 중·단편소설 한 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 각 시리즈의 서사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서사를 담고 있는 <세계일주>의 서사 구조를 예시로 소개하고자 한다. 「멍텅구리」의 다섯 번째 시리즈 <세계일주>는 한국 서사의 공간과 상상력을 세계로 확장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사가 되어 돌아온 윤바람과 함께 최명텅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세계일주 여행을 떠난다. “만세”를 외치는 운집한 군중의 배웅을 받으며 북쪽으로 비행한 두 사람은 ‘포은 선생의 혼’이 서려 있는 개성과 아들 똥똥이의 외가인 평양을 거쳐 만주로 날아간다. 봉천에서는 ‘동북왕’ 장작톱을 만나고, 서양 건물이 즐비한 천진 조계지에서는 전 대통령 러원홍을 만난다. 중화민국 임시집정 단기서도, 경극배우 매란방도 멍텅과 바람을 반갑게 맞는다. 산속에서 마적 떼와 마주치고, 남경 수비대가 쏘아올린 대포알을 피해 가며 가까스로 상해에 도착한다. 멍텅과 바람은 당소의를 방문하고 다시 한참을 날아 홍콩에 도착한다. 똑딱선을 타고 광둥에 다녀오다가 선상에서 태풍을 만난다. 파도에 밀려 아무 섬에나 겨우 정박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 식인종 떼가 몰려와 붙잡히고 만다.

구체적인 나라 명이 명시되지 않은 ‘야만국’에서 멍텅과 바람은 ‘짜바 미인’ 안녀를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야만국을 벗어나 바다에 표류하다가 며칠 만에 지나가는 기선에 극적으로 구조돼 네덜란드령 ‘짜바 섬’에 도착한다. 멍텅과 바람은 홍콩으로 돌아가 비행기를 되찾고 눈물을 흘린다. 이후 태국으로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다. 아라비아 사막과 수에즈 운하를 넘어 도착한 이집트에서 멍텅과 바람은 스펅크스의 귀에 실없는 소리를 속삭이고는 킬킬댄다.

모로코를 거쳐 도착한 스페인에서는 황제가 그들을 반긴다. 프랑스로 가는 길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안도라에 들렀을 때 멍텅은 항공국장 감투를 쓸 뻔한다. 모나코, 이태리,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벨기에를 거쳐 날아간 곳은 런던. 영국 황제는 이곳까지 무사히 온 공로를 치하하며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오슬로에서는 남북극을 발견하겠다고 수십 년을 떠도는 ‘노르웨이 멍텅구리’ 아문센의 나이 든 약혼녀가 이들을 반긴다.

오로라를 건너 도착한 곳은 미국령 알래스카. 미국에서 사랑받는 만화주인공 ‘멧과 제프’가 멍텅과 바람을 반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찰리 채플린과 만나고 북미 한인회관에 들렀다가 멍텅은 옥매의 편지를 받아 눈물짓는다. ‘곰뽕이 세계일주냐’며 귀환을 재촉하는 전보를 받은 멍텅과 바람은 과감히 태평양 횡단 비행에 도전한다.



[그림 2] <세계일주>에서 멍텅구리가 만난 세계의 정치가·혁명가들

이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까지 꼼꼼히 훑고 다니는 멍텅구리와 바람의 세계일주는 그때까지 한국어로 창작된 그 어떤 서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스케일로 펼쳐진다. 방문한 나라와 도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국제 정치 상황을 해학과 풍자 속에 담아 소개한다.

<세계일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해학과 풍자 이면에 숨어 있는 멍텅구리의 국제 정치와 혁명에 대한 관심이다. 멍텅구리가 중국에서 만난 장작립(張作霖: 장쥘린)은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군벌인 봉천군벌의 초대 수장이었고, 러원홍(黎元洪: 리위안홍)은 신해혁명 때 악(鄂: 湖北省)의 군도독(軍都督)으로 취임하였고, 난징 임시정부의 부총통을 지내다가 위안스카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총통에 추대된 인물이었다. 당소의(唐紹儀: 탕사오이)는 제2 혁명 때 위안스카이의 직계 관료로서 우전부상서(郵傳部尙書)에 이르렀으나, 후에 쑨원의 호법운동(護法運動)에 가담하였으며, 중화민국 성립 후에는 국무원 총리를 지냈다. 왕조명(汪兆銘: 왕자오밍)은 쑨원을 도와 혁명 운동에 활약하여 국민당 지도자로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었다. 인도에서 만난 간디, 모로코에서 만난 스페인 보호령 모로코 독립운동의 지도자 ‘앵델 크림’(Abd el-Krim: 아브드 엘크림)도 그 나라, 그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가·혁명가였다.

멍텅구리와 바람은 혁명가선동가로 오인돼 재판을 받기도 하고, 정치적 격변과 혁명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기도 한다. 인도에 들렀을 때는 “인도 사람에게 혁명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아 영국 경관에게 체포돼 재판을 받는다(66화, 67화). 페르시아에 들렀을 때는 폭력으로 얼룩진 대의사 선거를 목도하고 “이 나라 의회도 일본 의회 모양이

로구나”(73화)라고 탄식한다. 폴란드에 들렀을 때는 1926년 5월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 주도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파란(波蘭: 폴란드)에 요사이 혁명이 났다니 구경이나 가세”(92화)라고 바르샤바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폴란드 혁명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추락해 ‘군법재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멍텅구리」의 창작자들은 각국의 정치가, 혁명가와 멧텅의 만남, 그리고 정치적 격변과 혁명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도 혁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세계일주>는 표면적으로는 슬랩스틱으로 점철된 코믹만화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과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혁명가들과의 만남, 혁명 지역 방문, 혁명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오인되는 에피소드 등을 통해 우회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선에서 혁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것이 「멍텅구리」의 창작자들이 최멍텅이라는 어수룩한 인간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였다. 즉, 「멍텅구리」는 웃음과 해학이라는 표면적 서사 구조 아래 식민지 현실과 억압적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 협업을 통한 창작 방식과 영화와의 상호텍스트성

「멍텅구리」 시리즈는 그 내용이나 만화 형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제작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창작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192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조선일보는 대대적인 경영 및 지면 혁신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때 시대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안재홍과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상협이 이사로, 김동성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합류하게 된다. 미국에서 만화를 공부하고 온 김동성이 「멍텅구리」를 캐릭터 중심의 오락 만화로 기획했고, 안재홍과 소설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상협이 스토리를 썼다.²⁵⁾ 그리고 동양화의 대가 안중식의 제자이면서 학예부 기자로 활동하던 심산(心汕) 노수현이 그림을 맡았다.²⁶⁾ 이러한 협업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한국 신문연재만화 창작의 특징적인 모델이 되기도 했다.

당시 화단에서 일찌감치 주목받아 온 노수현의 화풍은 「멍텅구리」 만화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그만 칸 안에 등장인물의 동작과 표정이 생생하게 구현됐고, 원근법을 활용한 입체적인 공간 구성과 시각 효과 활용이 돋보였다. 노수현은 본래 한국화를 전공한 동양화가로, 신문사 취직 전에도 창덕궁 경훈각 벽화 등 대형 미술 프로젝트에

25) 박석환, 『한국 만화 정전: 신문 연재 만화 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34-43쪽.

26) 이들의 참여 기간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25년 조선일보 정간 이후 이상협이 사직했고, 1926년에는 김동성이 사직하는 등 연재 기간 창작 참여 인원의 변화가 있었다. 노수현 역시 1926년 퇴직했는데, 이후에는 심전(心田) 안중식 문하의 동료인 청전(靑田) 이상범이 그림을 맡았다. 1933년 2월 26일 다시 등장한 「멍텅구리」는 김인화가 그렸으나, 몇 달 후 지면에서 사라졌다. 노수현의 회고에 따르면 만화 연재 중반 이후부터는 편집국 내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내용 구성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해 왔다. 이후 그는 신문사를 옮겨 가며 「멍텅구리」, 「마리아의 반생」, 「연애경쟁」 등 다양한 신문 연재만화와 신문 소설 삽화 작업을 했고, 이는 그의 예술적 역량이 대중 문화와 만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산수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화가로서의 활동에 몰입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근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이력은 「멍텅구리」가 단순한 만화를 넘어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²⁷⁾

「멍텅구리」프로젝트의 기획자로 활약한 김동성은 한국 만화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10년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식 코믹 만화의 형식과 내용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도입했다. 특히 노수현, 이상범, 안석주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에게 만화 기법을 가르치며 1920년대 신문 만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듯 「멍텅구리」의 집단 창작 방식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결집시켜 작품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냈고, 당대 사회의 복합적 면모를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창작 방식은 초창기 「멍텅구리」를 기획하고 창작했던 인물들 대부분이 조선일보를 떠난 이후에도 「멍텅구리」의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이상협과 노수현은 1926년 중외일보로 이직하는데, 그 후로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들이 모여서 「멍텅구리」의 서사를 구성했고, 노수현에 이어 이상범이 그림을 그렸다. 신문사의 재정이 열악했고, 신문기자의 이동이 빈번했던 시대, 「멍텅구리」가 10년 가까이 연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집단 창작 방식 덕분이었다.

「멍텅구리」는 한국 콘텐츠 역사에서도 다른 미디어로 확장된 최초의 만화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26년 첫 번째 시리즈 <헛물켜기>를 각색한 영화 <멍텅구리>가 제작·개봉됨으로써 「멍텅구리」는 한국 최초의 영화 원작 만화로 기록된다. 이필우가 감독, 각색, 기획, 제작, 촬영을 모두 담당했다. 당대 인기 대중극 배우 이원규가 멍텅 역을, 실제 기생 출신 배우 김소진이 옥매 역을 맡았다.



[그림 3] 영화 〈멍텅구리〉 스틸컷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27) 이승은,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삽화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5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3, 12-14쪽.

영화 <멍텅구리>는 1926년 서울 인사동 조선극장에서 상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는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멍텅구리」 만화의 대중적 인기를 입증함과 동시에 만화의 영상화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적 사례였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코미디 영화로 평가되기도 한다. 만화의 슬랩스틱적 요소와 풍자적 성격을 영상으로 구현해 당시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작품은 [그림 3]의 스틸컷 한 장과 『조선일보』 1926년 1월 10일자에 게재된 스틸컷 9장만 남아 있을 뿐, 원작 영상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멍텅구리」의 영화화는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만화 원작 영화·드라마 제작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기 있는 만화를 영화로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원작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이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미디어 간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멍텅구리」는 한국 최초의 영화 원작 만화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서사에 영화와 영화 제작 과정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영화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최초로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자작자급> 시리즈 65~71화에서 다루지는 활동배우와 영화 제작 관련 에피소드는 1920년대 한국 사회에 도입된 새로운 대중문화의 모습을 담아낸다. 당시 영화관에서 상영된 활동사진은 지금처럼 여러 대의 카메라와 유려한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하나의 영상물이라기보다는 연극에 더 가까웠다. 특히 멍텅과 바람이 키다리과 땅딸보 역할을 맡은 '연쇄극'(69화)은 필름으로 찍은 일부 장면을 연극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보여주는 새로운 공연 양식이었다. 이러한 연쇄극 시기는 초기 영화의 틀을 형성하고, 장차 한국영화 제작 기반을 마련할 감독과 배우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림 4] 연쇄극을 촬영하는 멍텅과 바람

<가정생활> 시리즈 5~9화에서는 멧텅과 바람이 배우를 그만두는 기념으로 마지막 영화를 찍는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5화에 걸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군마를 탄 멧텅이 대군을 이끌고 남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다. 이러한 방식으로 「멍텅구리」는 영화를 만화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다. 심지어 <가정생활> 시리즈 86~87화, 90화에서는 멧텅이 영화관에서 영화 <멍텅구리>를 보는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멧텅은 자신과 옥매의 사랑을 다룬 영화 <멍텅구리>를 보고 옥매에게 달려가 “누구랑 놀아났느냐”고 대뜸 화를 낸다. 옥매가 멧텅을 영화관으로 다시 데려가 영화 속 옥매는 자신이 아니라 배우이고, ‘옥매 역할 배우’가 사랑하는 대상 역시 ‘멍텅 역할 배우’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야 멧텅의 오해가 풀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멍텅구리」는 영화와 영화 제작 과정을 만화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서사를 구성했다.

「멍텅구리」속 캐릭터들은 만화 속 인물을 넘어 조선일보의 마스코트 역할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만화가 인기를 얻은 후 ‘멍텅구리’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신문이나 잡지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사건이나 희극 영화를 언급할 때 관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²⁸⁾ 여러 기사와 광고에서 멧텅구리가 언급되거나 그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1933년 <기자생활>이라는 새 시리즈에서는 멧텅과 바람이 자신들을 ‘조선일보 만화 배우’로 소개한다. 이는 만화 캐릭터를 실제 인물처럼 취급하는 메타적 접근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캐릭터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만화와 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동시에 조선일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했다. 또 만화 캐릭터의 활용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신문사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III. 억압적 식민 통치와 식민지 사회상에 대한 우회적 풍자

1. 억압적 식민 통치에 대한 우회적 풍자

“우습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를 부제로 삼았던 만화 「멍텅구리」는 일본의 억압적 식민 통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서사의 배경이나 소재로 삼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공식적, 비공식적 언론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을 만화 속 유머 소재로 다룬 것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멍텅구리」의 여러 에피소드에는 일제의 억압적 정책들이 초래한 부조리한 상황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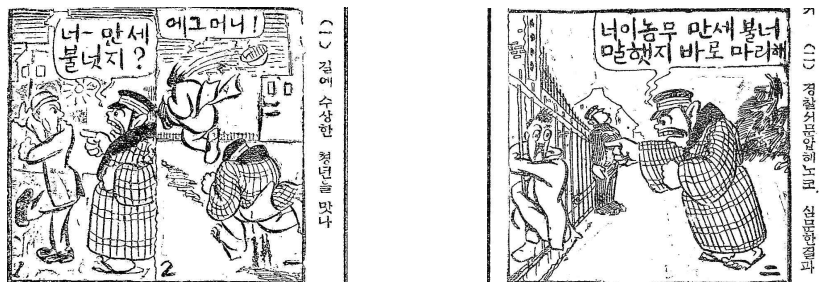
28) 서은영, 앞의 논문, 296쪽.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다. 총독부의 외국산 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비판한 ‘칼표 담배’ 에피소드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옥매는 명팅에게 자신의 사랑을 얻으려면 ‘칼표 담배’를 구해달라고 한다. “담배 한 갑 구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라” 하며 자신만만하던 명팅은 총독부의 외국산 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로 조선에서는 영국산 ‘칼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압록강 건너 만주 안동현까지 칼표 담배를 사러 간다.

이 에피소드는 총독부의 식민지 통제 전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는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목표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담배나 술과 관련된 간접세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이미 1912년 ‘연초전매령’이 공포돼 총독부가 연초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고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팅이 ‘칼표’와 같은 외국산 담배를 구하는 일은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실제로 1923년에는 평양의 한 기생이 안동현에 다녀오는 길에 칼표 담배 12갑을 가지고 오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매령 위반이라며 당시 월급쟁이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 100원이 부과돼 화제가 되었다.²⁹⁾

3·1 운동과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주목할 만하다. 만화에는 사람이 모이는 일에 일본 순사들이 노이로제성 반응을 보이고 과하게 단속을 벌이는 모습이 꾸준히 등장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경찰이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두려워하며 강압적인 통제를 일삼았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헛물켜기> 후반부에 걸쳐 연재되는 ‘만세 소동’이 대표적이다. 구애에 성공한 명팅이 옥매, 바람과 함께 눈 속에서 “만세”를 외치자 이를 들은 순사들은 깜짝 놀라 수사에 나선다. 이때 잠자던 서장까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긴장하고, 순사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아 허둥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

매년 3월 1일을 전후로 경계를 강화하고 일체의 행사를 금지시켰던 ‘3·1 비상경계대’의 존재 역시 <연애생활> 84화의 에피소드에서 언급된다. 직접적인 비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일제의 억압적 통치 실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명팅구리」식 ‘항일 서사’였다.



[그림 5] 명팅과 옥매의 ‘만세 소동’에 자다 뛰어나와 단속을 벌이는 서장의 모습

29) 「刀票 담배 12포의 벌금 100원」, 『매일신보』, 1923년3월4일.

「명탕구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의 참상을 고발하기도 한다. <자작자급> 시리즈에서 다룬 을축년(1925년) 대홍수가 대표적이다. 이 홍수는 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대홍수로 기록된다. 유례없는 큰비로 전국에서 647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가옥과 논밭이 유실되었으며, 피해액은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달하는 1억300만 원이었다. 특히 7월 14일 시작된 2차 홍수³⁰⁾ 때에는 한강이 크게 범람해 영등포, 용산, 동부이촌동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만화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묘사하며 당시의 열악한 재해 대응 시스템과 식민 정부의 차별적 구제 활동을 풍자한다. 당시 경성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강변이나 섬, 웅덩이 근처 등에 살았던 터라 특히나 홍수 피해가 극심했다. 한바탕 비가 지나간 후에도 총독부는 차별적 구제 활동을 벌이고 조선인들의 자발적 구제 행위를 탄압했다. ‘수해’가 명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홍수 피해가 잦던 지대였던 이촌동 일대는 피해를 복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폐동(廢洞)을 만들어 조선인의 거주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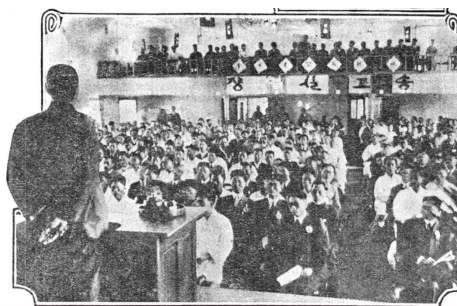
[그림 6] 을축대홍수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한 <자작자급> 중 ‘수해구제’ 에피소드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용산 일대를 일본인 지구로 만들고자 했던 일제의 도시개발 계획이 깔려 있었다. 총독부는 1920년대 초반부터 한강변을 일본인들이 즐길 행사를 개최하는 놀이 장소로 개발하고자 했다. 그 와중에 발생한 홍수를 조선인을 축출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렇듯 을축년 대홍수는 민족과 계급, 자본의 위계가 뒤섞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만화는 순사가 된 명탕이 구호 현장에 인원 파견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분노하며 모자를 메어붙이는 장면(37화) 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 구조와 식민 통치의 문

30) 당시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통해 당시의 홍수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24년 7월 18일 조선일보 호외는 “뚝섬 상부에 있는 신천리, 잠실리 두 동리는 약 1000호에 약 4000명이 전부 물속에 들어서 모두 절명 상태에 있다”며 “17일 밤 10시경부터 살려 달라는 애호성(哀號聲)이 차마 들을 수 없이 울려 왔는바 그동안 모두 사망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날 밤까지 또 비가 퍼붓은 것인지 다음 날 동아일보는 “17일 밤 뚝섬과 왕십리 사이는 완전한 바다로 변하여 사면이 양양한 물천지요, 더욱이 전기까지 끊어져서 암흑세계를 이루었다”고 전하며 “배를 부리던 사공조차 제 몸 위함을 느껴 출동을 거절하며 출동하였던 백 명의 공병대도 사나운 물결에 어느 곳에 피난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애생활>에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등장한 조선기자대회도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다. 1925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성에서 열린 조선기자대회는 총독부의 언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 규모의 언론인 집회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에서 723명의 기자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림 7] 명텅이 받은 조선기자대회 초청장(왼쪽)과
개회식 모습(오른쪽, 출처: 동아일보, 1925.4.16.)

만화는 명텅이 “조선일보에 신문 재료를 잘 제공하신 공로”로 우연히 이 대회 초청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해 당시 언론계의 동향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1920년대 들어 총독부는 표면상으로 ‘문화통치’를 내걸었으나 이전만큼이나 엄격하게 언론을 탄압했다. 실제로 조선기자대회 역시 총독부의 엄격한 감시하에 진행되었고 일부 결의안은 경찰에 의해 보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 대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의 눈이 쏠린 것을 틈타 조선공산당 창립대회 등 일련의 공산당 관련 대회가 연이어 개최된 점 역시 흥미롭다.³¹⁾ 「명텅구리」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대회를 언급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풍자했다.

1933년 경성에서 발생한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을 배경으로 한 「명텅구리」 마지막 시리즈인 <기자생활>의 ‘단두 사건’도 우회적이고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명텅구리」의 서사 전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경성 죽첨정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아의 잘린 머리가

31) 조선기자대회가 진행되던 1925년 4월 경성에서는 고려공산동맹 대회(16일), 조선공산당 창립대회(17일),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회(18일)가 비밀리에 개최됐다. 이러한 공산당 관련 창립대회를 주도했던 박헌영과 김단야는 당시 조선일보 현직 기자였다. 이로 인해 기자대회가 물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벌인 연막작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 기자대회에 참석한 지방 기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 성향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 조선기자대회의 개최 경위 및 의의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임경석,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자와 언론활동: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연구」, 『사람(성대사람)』 44권, 수선사학회, 2013, 27-52쪽 참고.

발견되면서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었다.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었지만, 조선인들을 더 두렵게 한 것은 일본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용의자 검거에 실패하자 총독부와 경찰은 비상이 걸렸고, 나병 환자, 길거리의 빈민층 등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이러한 총력전에도 이렇다 할 실마리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경성의 어린아이 무덤을 죄다 파헤친 끝에 ‘단두’의 주인을 찾아낸다. 사건의 진상은 ‘아이의 뇌수가 간질병에 특효약’이라는 미신적 믿음에 의한 범죄로 밝혀졌다.³²⁾



[그림 8] <기자생활> 중 명텅이 ‘단두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특종 보도한 에피소드

<기자생활>에서는 기자가 된 명텅과 바람이 여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단두 살인 사건’을 취재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진다. 명텅과 바람이 이 사건으로 특종 기사를 써내자, 신문을 읽던 길거리 사람들은 “하하, 요즈음 웬 단두가 그리 많아?”하며 수군댄다. 이처럼 만화는 단두 유아 사건이라는 당대의 사회 이슈를 통해 언론의 선정주의와 경찰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풍자한다.

이처럼 「명텅구리」의 서사는 표면적으로 부잣집 한량 최명텅이 평양 기생 옥매에게 반해 갖은 방식으로 구애하는 스랩스틱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해학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억압적 식민 통치를 풍자·비판한다. 1920년대 사회상·시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옥매가 피우고 싶다는 칼표 담배를 사러 압록강을 건너거나, 기자가 된 명텅이 ‘잘린 머리’를 들어보이는 행동은 독자에게 ‘억지 웃음’, ‘억지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꾸며낸 개연성 없는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총독부는 질 나쁜 일본산 ‘마코 담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국산 칼표 담배의 수입을 금지

32) 전봉관, 『경성기담』, 살림, 2006, 13-47쪽 참고.

했고, ‘단두 유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과 부랑자를 상대로 강압적 수사를 전개했다. 「멍텅구리」의 서사는 총독부의 억압적 식민 통치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자체가 슬랩스틱 코미디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근대 문화와 제도의 강압적 이식에 대한 우회적 풍자

일제강점기는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조선인이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시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문화와 제도가 조선 사회에 이식되던 시기였다. 전근대적인 역법인 음력을 세계 표준의 근대적 역법인 양력으로 변경한다거나, 도로의 통행 규칙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개혁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근대 문화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 사회에 이식되는 방식이었다.

「멍텅구리」는 ‘양력과세’, ‘좌측통행’, ‘민물게장 금지령’, ‘카페’ 등 다양한 근대 문화와 제도가 만화의 소재로 등장한다. 양력을 표준 역법으로 삼은 이상 새해의 시작을 양력 1월 1일로 삼으라거나, 길에서 무질서하게 다니면 불편하니 왼편으로 통행하라거나, 민물 생물을 익히지 않고 먹으면 디스토마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 민물 게장을 먹지 말라거나, ‘모던’한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커피와 양주를 파는 카페 영업을 허가하는 것 등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거나 적어도 필요악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였다. 「멍텅구리」는 그러한 근대 문화와 제도가 조선 사회에 이식되는 과정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보여줌으로써 근대 문화와 제도의 도입이 그 시대 조선인에게서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식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풍자한다.



[그림 9] ‘양력과세’에 관한 멍텅구리와 옥매의 대화

일제강점기 들어 조선총독부는 전통 설을 ‘구정’으로,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명명하며 양력설을 공식적으로 ‘권장’했다. <연애생활> 22~26화는 그것이 조선인들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예들려 풍자한다. 명탕이 “나도 금년에는 옥매도 새로 맞고 하였으니 시세를 쫓아서 과세도 양력으로 하여 보아야지”하고 흰떡을 대량 주문하며 요란을 떨자, 옥매는 “과세는 무슨 과세, 조금도 설 같지 아니한데”하며 응수한다.

실제로 당시 경성에서는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다른 설을 쇠는 기이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일본 경찰은 음력설이 되면 총칼을 차고 떡이나 술을 만드는 조선인들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럼에도 많은 조선인들은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양력 설날에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일부러 음력설을 지냈다.³³⁾ 총독부의 방침 때문에 신문과 잡지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양력설을 홍보했지만, 음력설이면 북촌의 활기찬 설 풍경을 묘사하며 음력설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명탕구리」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갈등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실생활 속에 녹여 그려냈다.

설령 새해를 2번 맞는 이중과세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세시풍속인 한, 총독부가 강압적으로 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설 과세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를 조선인이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명탕구리」는 양력설을 맞아 들뜬 명탕의 호들갑과 옥매의 냉정한 힐난을 대비시킴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양력설을 강제한 것은 심각한 문화적 억압이었음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양력설과 음력설의 관계처럼, 좌측통행과 우측통행도 가치 중립적인 ‘선택’의 문제였다. 도로의 통행 방향을 규정한 한국 최초의 법령은 대한제국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 규칙(1905.12.30)이었다. 대한제국이 주체적으로 우측통행을 공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을사늑약(1905.11.17) 체결 직후 일본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된 시기에 공포된 법령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 제6조는 “가로에서 제차(諸車)와 우마(牛馬)가 마주친 때는 서로 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해야 한다.” 하여 일본과는 정반대인 ‘우측통행’을 규정했다. 강제 합방을 주도한 일본 군부가 일본 군대의 통행 방향인 우측통행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1906년 1월부터 시행된 대한제국의 우측통행은 1910년 강제 합방 이후에도 10년 이상 유지되었다.

33)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 구술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일제시대 설날에는) 아이고 술도 못 만들고 떡도 못 만들고 감시하고, 여기 칼 찬 순경들이 있어. 그 자식들이 밥에 와서 몰래 봐. 못해. 떡 만드는 거. 술 막걸리 냄새 귀신같이 알아. 걸리면 혼나게 붙잡혀서 직사게 얻어맞는 거지. (...) (양력설날에는) 아무것도 안했어. 한국 사람들은 오기가 있어서 하라면 하는 척도 안하고 음력설날만 지냈지. (...) 일부러 음력설 지냈어. 반항하는 거야.”(1933년생 종로구 출신 구술자) 자세한 내용은 안주영, 「일제강점기 경성(京城)의 음력설과 양력설-북촌과 남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 68호, 2019, 226쪽 참고.



[그림 10] <연애생활> 89화에서 취객과 멍텅 일행이 좌측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는 장면

1921년 10월 25일 총독부는 12월 1일부로 도로의 통행 방향을 좌측통행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도로의 통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소방대원과 비번 경찰관들이 ‘좌측통행가’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으며, 전차나 인력거, 차량마다 ‘좌측통행’ 글씨가 써붙였다. 좌측통행 그 자체는 행정상 선택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도입·정착하기 위한 홍보, 계도, 단속 등 일련의 과정은 조선인에게 제도적 억압으로 받아들여졌다.

「멍텅구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학적으로 풍자한다. <자작자급> 시리즈에는 순사가 된 멍텅이가 “좌측통행”을 외치고 다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도 순사가 된 멍텅이 피난민을 향해 “좌측통행”을 외치는 에피소드(34화), 아이들이 순사가 된 멍텅이 우측통행을 한다고 놀리는 장면(26화) 등은 일상에서 좌측통행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억압하는 고지식한 규칙이었음을 보여준다.

<헛물켜기> 25~28화에서 다뤄지는 민물 게장 판매 금지령은 전근대적 관습과 근대적 위생 개념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1924년 4월 조선총독부는 폐디스토마 예방을 위해 게 등 해류(蟹類)의 채취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양력설, 좌측통행 등과는 달리 위생과 보건의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근대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민물 게장으로 유명했던 파주 장단 등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게장 섭취가 이어져 다수의 디스토마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총독부는 별도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에 검사의를 파견해 대대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서는 동시에 게류의 ‘박멸’을 시도했다.³⁴⁾



〈그림 11〉 민물 계장을 구하기 위해 직접 파주로 떠난 멧텅의 모습

“총독부에서 담배 장사를 한다더니, 경찰서에서 계장까지 파는가. 별놈의 세상을 다 보겠군”(23화), “총독 정치는 차별 정치라더니 계장도 맛있는 것이라고 일본 사람한테만 파는가 보다”(25화) 등 멧텅이의 대사를 통해,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 문화의 수용이 일본의 강압적 조치와 엮여 당대 조선인들의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계장’ 에피소드는 근대적 위생과 보건 제도는 제도의 시행만큼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중요했는데, 오랜 식문화를 금지하면서도 홍보와 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제도의 시행만 밀어붙인 바람에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의 시행이 총독부의 식문화 탄압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6년 남짓 공백 후 1933년 연재 재개된 <모던생활>은 1930년대 경성의 퇴폐 문화를 풍자한다. 이 시기 경성의 퇴폐 문화는 ‘에로’, ‘그로’, ‘년센스’라는 세 가지 요소로 대표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에로’는 1920년대 후반 등장한 카페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확산되었다.

카페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여급의 접대가 있는 유흥업소였다. 이곳에서는 기생이 나오는 요리집이나 유곽과는 달리 보다 공개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카페는 신여성이 지닌 현대적 에로티시즘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각광받았다.³⁵⁾ 그러나 <모던생활>에서 구식 문화에 익숙한 멧텅은 웨이트리스를 번쩍 들어 대놓고 희롱하다가 쫓겨나고 만다.

이어지는 시리즈 <기장생활>은 ‘낭만 자살’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풍자한다. 한강철교 위 “ちょつと お待ち(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쓰인 깃발과 “유행에 따라 자살을 해?”(43화)하는 멧텅의 대사가 보여주듯, 1920~40년대 청년층 사이에서 사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1920~40년 사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도된 자살 관련 기사만 3만 건이 넘었다. 많은 경우 젊은이들의 자살 현장에는 ‘염세’나 ‘허무’, ‘권태’와 같은 단어를 포함한 유서가 남아 있었다.

34) 「폐(肺) 『디스토마』 환자(患者)」, 『조선일보』, 1924.08.05.

35)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36-48쪽.

1920년대의 자살이 주로 생활고나 빚을 이유로 한 생계형이었다면, 1930년대의 자살은 한때 서구를 휩쓴 열병과 유사한 ‘낭만 자살’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비극적 ‘열풍’의 중심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성악가이자 <사의 찬미>로 유명한 가수 윤심덕과 부유한 극작가 김우진의 동반 자살이 자리했다.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 일본에서 귀국하는 배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이 소식은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당대 최고의 스캔들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멍텅구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섬세하게 포착해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이는 풍자나 웃음 유발의 목적을 넘어, 격변기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한 귀중한 문화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 여성의 계층 분화와 남성중심주의 가정 문화 풍자

「멍텅구리」의 중심 서사는 부잣집 한량 멍텅이 평양 기생 옥매에게 집요하게 구애하고, 결국 옥매의 마음을 얻어 가정을 꾸리고 아들 똥똥이를 낳아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큰 틀에서 연애 서사에 속하지만, 일제강점기 청춘 남녀의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일반적인 연애 서사와는 차이가 있다. 옥매가 기생이었고, 멍텅에게 본부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확실한 만큼, 멍텅과 옥매의 가정이 소위 ‘정상 가족’이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작품 속에서 옥매가 살아가던 1920년대는 기생의 입지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돈만 있으면 ‘상놈’이라도 기생을 불러 놀 수 있게 되었고, 기생업은 일종의 대중 서비스업으로 변모했다.³⁶⁾ 구한말 관기 제도 폐지 후 기생은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권번(券番)이라는 조합으로 다시 묶여 관리를 받았다. 권번은 어린 기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자, 요릿집과 공생관계를 이뤄 출입을 지휘하고 ‘화대’를 받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³⁷⁾

<헛물켜기>에서 멍텅이가 헛절수로 “옥매를 한 번 사볼까”(13회) 하며 고민하는 모습, 뒤이어 나오는 시리즈인 <연애생활>에서 “혼인식을 권번에서 할까”하며 고민하는 멍텅의 모습 등을 통해 기생들이 권번에 강하게 예속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멍텅의 입장에서 옥매에게 구애해 옥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 내는 것과는 별개로 권번으로부터 옥매를 해방시키는 속신(贖身) 절차가 필요했을 것인데, 「멍텅구리」에는 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36) 김태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 황소자리, 2005, 13-14쪽.

37) 신현규, 『기생 이야기: 일제시대의 대중스타』, 살림, 2007, 35-40쪽.



[그림 12] 사진관에 걸린 옥매 사진을 구경하는 멍텅의 모습

당시 기생들은 옥매처럼 한복에 버선을 신고, 쪽진 머리를 한 모습으로 요릿집³⁸⁾에서 ‘노름’(호출)을 받아 술 접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조선시대에 비해 위상이 약해진 했지만 이들은 단순 접대부 이상의 존재였다. 옥매가 춤을 추는 공연장이 만석이 되어 멍텅이 입장조차 하지 못하는 에피소드(<헛물켜기> 4화)나, 사진관에서 공공연하게 옥매의 얼굴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에피소드(<헛물켜기> 6화) 등을 통해 예인(藝人)이자 배우, 대중 무대의 스타로서 살아가던 당시 기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생은 여학생, 그리고 카페 여급의 등장으로 인한 퇴락 전까지 유행의 주체이자 욕망의 대상이었다. 멍텅이 연애의 상대로 기생 옥매를 선택한 것 역시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당대 신문 기사나 문학 작품에는 조혼으로 이미 본처가 있는 모던 보이와 기생의 사랑, 그로 인한 정사(情死) 사건 등이 자주 등장한다. <연애생활> 65화에서도 살림을 하자는 멍텅의 요구에 옥매가 “시골댁에 부인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며 본처 유무를 묻자 멍텅이는 우물우물 하며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옥매와 같은 기생들이 <헛물켜기>부터 <연애생활> 후반까지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이었다면, 이후에는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한다. 멍텅이가 ‘미인’이라 부르는 이 여성들은 트레머리(만화에서는 ‘양(羊)머리’)에 종아리가 살짝 드러나는 짧은 치마, 굽이 있는 구두를 착용한 ‘신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옥매의 강짜에 “아이그 망칙해라. 기생년이

38) 요릿집(요릿집)은 당시 고급 음식과 술을 판매하던 곳으로, 1920년대 이후 요릿집은 고급음식점의 대명사로 통했다. 조선요릿집에서도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면 기생을 불러 연회석에서 술을 따르거나, 춤·노래·악기연주를 시키고 수고비를 주는 일본식 요정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요릿집 하면 당연히 기생이 연회에 배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멍텅구리 시리즈에 등장하는 장춘관, 명월관 등은 당시의 대표적인 조선요릿집으로, 손님이 직접 기생을 지명하여 노름을 대고 함께 식사나 술자리를 하는 장면을 만화에서도 볼 수 있다.

귀부인도 몰라 보나”(<연애생활> 154화)하며 노골적으로 기생을 천대하고 불쾌감을 드러낸다. 기생으로 대표되는 ‘구여성’과 교육받은 ‘신여성’간의 분리와 대립을 통해 전통과 근대가 경합하고 갈등하던 당시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그림 13] ‘신여자’에게 수작을 부리다 옥매에게 혼이 나는 명팅의 모습

30년대까지 라디오, 음반, 광고모델로 활발히 활동하던 ‘만능 엔터테이너’ 기생의 입지는 이후 신여성과 여학생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의 등장으로 위협을 겪고, 결국 쇠락하게 된다. 1920~30년대라는 격동기, 「명팅구리」에 포착된 여성의 계층 분화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독해 지점이다. 친신만고 끝에 옥매의 사랑을 얻은 명팅은 옥매를 아내로 사랑하면서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트레머리(양머리) 여성을 쫓아다닌다.

「명팅구리」는 ‘연애’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³⁹⁾과 함께 알려진 남녀의 자율적 연애와 부부 중심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선구적으로 그려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⁴⁰⁾ <연애생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잘 포착된다. 비록 명팅과 옥매가 어리숙한 한량과 기생이라는 비정형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근대적 가족 담론의 변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통해 당시 가정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39) 연애란 ‘남녀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서구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 1910년대 말에 도입된 말로, 20년대 들어 인기를 얻고 본격적으로 쓰였다.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5쪽.

40) 서은영, 앞의 논문, 293-294쪽



[그림 14] 멍텅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멍텅이 사온 장독을 깨 버리는 옥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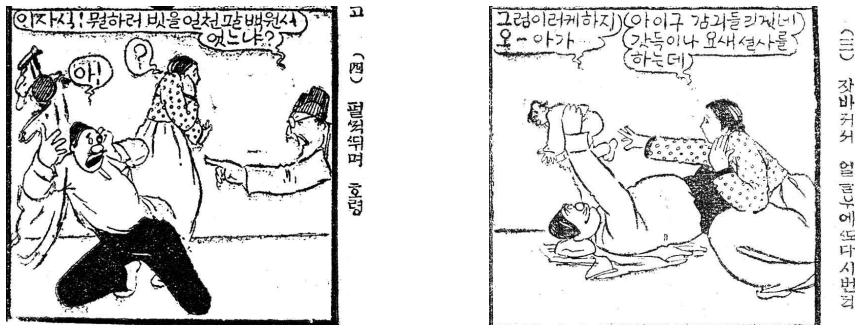
<연애생활>에서는 집이라는 장소, 그리고 옥매와 멍텅의 가정 내 상호작용이 중요한 서사적 요소로 부각된다. 두 인물의 작은 스위트홈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가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완전히 전복된 세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옥매는 멍텅에게 “멍텅구리짓 하지 말고 똑똑이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대고(11화), 화가 나면 가차 없이 멍텅을 집 밖으로 쫓아내며(12화), 그가 들여놓은 장독을 뱀다 깨어 버리기도 한다(66화). 또 옥매의 야단이 떨어지면 멍텅은 바로 무릎을 꿇은 뒤 치맛단을 붙잡고 애걸하며, 처음에는 기생이라며 역정을 내던 멍텅의 부모조차도 옥매에게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사정한다.



[그림 15] 옥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멍텅

그러나 이러한 관계 역학은 멍텅의 폭력적 행위를 통해 다시 전통적 가부장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옥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해줄 것 같았던 멍텅은 옥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상하면, 옥매의 머리에 오줌을 들이붓고,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다(63화, 70화, 71화, 124화). 옥매가 멍텅에게 폭행을 당하면 평상시 멍텅에게 당당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리며 빈다. 멍텅에게 이러한 옥매의 ‘행복’은 곧 “새신랑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 즉 드디어 가부장으로서의 위계를 바로잡게 되었다는 의미로 인식된다.

<연애생활>에서 옥매는 여러 번 멍텅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다시 그를 구해주러 나다니는 등 행동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멍텅과 옥매의 갈등 극복이 폭력을 매개로 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과 결합해 옥매의 감정과 욕망을 공백으로만 남겨둔다.



[그림 16] 아들 멍텅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큰멍텅(왼쪽),
똥똥이와 다정하게 놀아주는 아버지 멍텅(오른쪽)의 모습

「멍텅구리」 시리즈에서 주인공 멍텅은 아들(큰멍텅과의 관계)과 아버지(똥똥이와의 관계)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며, 작품은 이를 통해 1920년대 조선의 변화하는 가정 문화와 아버지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멍텅 부친 ‘큰멍텅’은 시골에 거주하는 전통적 가장이지만, 동시에 멍텅이 필요로 할 때마다 큰돈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한다. 큰멍텅과 멍텅의 관계에서는 전통적 부자 관계가 드러나는 반면, 멍텅과 똥똥이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자 관계가 포착된다. 멍텅이 똥똥이에게 보이는 애정 어린 모습은 전통적 가부장의 엄격한 이미지와 대비되며, 이는 당시 변화하는 아버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멍텅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멍텅이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보여주는 어설픈 모습들은 전통적 가정의 위계와 다른 새로운 가족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멍텅구리 가정은 당대 조선 가정의 모순과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멍텅구리」 시리즈는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사고방식의 충돌, 식민지 상황에서의 가정의 위치, 그리고 변화하는 아버지의 역할 등을 통해 당대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00년 전인 1924년 10월 연재가 시작돼 10년 가까이 지속된 「멍텅구리」는 단지 한국 ‘최초’의 네칸만화라는 만화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서사의 무대와 상상력을 세계로 확장하고, 창작 방법으로서 집단 창작을 도입했으며, 영화 원작 만화의 효시이면서 동시에 서사에 영화와 영화 제작 현장, 심지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멍텅구리>까지 수용하는 등 영화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기념비적 서사’였다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

본 연구에 앞서 한국 최초의 신문연재만화로서 「멍텅구리」의 만화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언급된 바 있었다. 하지만 744건에 달하는 방대한 연재물을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개된 원문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지금까지 「멍텅구리」에 대한 연구는 서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연재물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 ‘YOLOv5_FPC’와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에서 제공한 고해상도 신문 파일로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던 서지 정보는 확정되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멍텅구리」 연재물 전체를 확인하고 분석한 본 논문과 744건의 원문과 현대어 번역을 수록한 단행본을 통해 「멍텅구리」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멍텅구리」 연재 100주년을 기념해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개될 744건의 원문 자료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멍텅구리」 연재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소수의 만화연구자에게 부분적으로 읽혔던 「멍텅구리」가 만화사, 서사학, 미술사, 문화사, 언론사, 근대사 분야의 연구자들에 게도 널리 읽힐 것이며, 결과적으로 「멍텅구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멍텅구리」의 텍스트 확정과 서사 구조의 혁신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구명했다.

첫째, 본 연구는 「멍텅구리」가 억압적 식민 통치를 풍자한 양상을 검토했다. 「멍텅구리」는 일본의 억압적 식민 통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서사의 배경이나 소재로 삼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공식적, 비공식적 언론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을 만화 속 유머 소재로 다룬 것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 구체적 양상을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총독부의 외국산 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3·1 비상경계대와 만세 소동, 을축년 대홍수, 조선기자대회, 죽점정 단두 유아 사건 등이 「멍텅구리」 서사에 어떻게 수용돼 풍자되었는지 검토했다.

둘째, 본 연구는 「멍텅구리」가 근대 문화와 제도의 강압적 이식을 풍자한 양상을 검

토했다. 「멍텅구리」에는 ‘양력과세’, ‘좌측통행’, ‘민물 계장 금지령’, ‘카페’ 등 다양한 근대 문화와 제도가 만화의 소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근대 문화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하지만 「멍텅구리」는 그러한 근대 문화와 제도가 조선 사회에 이식되는 과정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보여줌으로써 근대 문화와 제도의 도입이 그 시대 조선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식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셋째, 본 연구는 「멍텅구리」에 드러난 여성의 계층 분화와 남성중심주의 가정 문화를 풍자한 양상을 검토했다. 「멍텅구리」는 부잣집 한량 멍텅과 평양 기생 옥매이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연애 서사이지만, 옥매가 기생이었던 만큼, 일제강점기 청춘 남녀의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일반적인 연애 서사와는 차이가 있다. 「멍텅구리」 서사는 연애결혼으로 일군 스위트홈, 신식 가정에서 표면적으로 여성이 존중받고 가부장적 질서가 전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정 폭력과 남성중심주의적 질서는 여전히 견고했음을 보여준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만화 서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 그림과 연출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메인 플롯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만화사적, 문화사적, 언론사적 의미가 섬세히 구명되어야 할 다양한 서브 플롯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멍텅구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본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김태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 황소자리, 2005.
- 박석환, 『한국 만화 정전: 신문 연재 만화 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 -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 신현규, 『기생 이야기 - 일제시대의 대중스타』, 살림, 2007.
- 윤영옥, 『한국신문만화사』, 열화당, 1986.
- 이해창, 『한국시사만화사』, 일지사, 1982.
- 전봉관, 『경성기담』, 살림, 2006.
-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민족과 함께 한 세기(上)』, 조선일보사, 2020.
- 조선일보100년사편찬실, 『민족과 함께 한 세기(인물·자료)』, 조선일보사, 2020.

• 참고논문

- 김태웅, 「1925년 일제의 京城府 二村洞 水害對策과 都市開發 構想」, 『역사연구』 제33호, 역사학연구소, 2017, 95-132쪽.
- 김정환, 유단비, 「식민지 조선에서 사진의 대중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3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4, 119-145쪽.
- 서은영, 「코믹스(Comics)의 기획과 대중화: 신문연재만화 〈명탕구리〉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73-304쪽.
- 서은영, 「한국 '만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언」, 『인문콘텐츠』 제2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101-128쪽.
- 안주영, 「일제강점기 경성(京城)의 음력설과 양력설-북촌과 남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68집, 비교민속학회, 2019, 185-239쪽.
-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64호, 한국사연구회, 2014, 29-58쪽.
- 이송은,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삽화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5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3, 7-38쪽.
- 임경석,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자와 언론활동: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연구」, 『사람(성대사람)』 44권, 수선사학회, 2013, 27-52쪽.
- 정희정, 「만화 《명탕구리》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이미지」, 『미술사논단』 제43호, 한국미술연구소, 2016, 179-206쪽.
- 장하경, 「명탕구리의 이야기 기법」, 『한국학보』 제119호, 일지사, 2005, 174-191쪽.

차예진, 「1920~1930년대 조선 배우들의 고용불안정성 인식 및 다각적 생계활동에 관한 연구」, 『역사문제연구』 제42권, 역사문제연구소, 2019, 487-520쪽.

하종원,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지형과 전망 : 정치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609-643쪽.

하종원, 「식민지 조선의 신문연재만화의 즐거움과 욕망」,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113-133쪽.

Lee, S., Kim, B., and Jun, B. G., "Automatic Detection of Four-Panel Cartoon in Large-Scale Korean Digitized Newspapers using Deep Learning",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 Vol. 10, No. 36, 2024, pp. 1-15.

• 기타자료

「映畵人 圓卓會議(上)」, 『조선일보』, 1937년 1월 4일, 19면.

<ABSTRACT>

Narrative Structure and Cultural–Historical
Significance of ‘Meongteongguri’, Korea’s First
Serialized Newspaper Comic

Jang Woo–Ri* · Kim Byungjun** · Jun Bong Gwan***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cultural-historical significance of “Meongteongguri”, Korea’s first long-running comic series published in the Chosun Ilbo from 1924 to 1933. The research team utilized deep learning technology to accurately identify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ollect 743 episodes of the series. Subsequently, based on the series’ creative methods and narrative structure, we analyzed the zeitgeist and cultural landscape of colonial Korea as reflected in specific episodes.

We first explored how major historical events and institutional/social changes of the tumultuous 1920s were reflected in Meongteong’s daily life, analyzing the multifaceted clash between modern and traditional cultures. Next, we highlighted various episodes that showcase “Meongteongguri’s” unique commentary on the political realities of colonial rule, uncovering critical messages about imperialism and oppressive state power embedded in what has often been regarded primarily as entertainment comics. Lastly, by examining the new concepts of romance and modern family depicted in the series within their historical context, we investigated the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and patriarchal structures of the time.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four-panel comic “Meongteongguri” is not merely a form of entertainment but a significant cultural-historical document that vividly captures the changes, conflicts, and colonial realiti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provides a foundation for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aspects of Korean popular cul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s historical context, while also underscoring the need for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he significance of “Meongteongguri” in the history of comics, culture, and journalism.

Key Words : Meongteongguri, four-panel comic, editorial cartoon, Japanese colonial period, modern culture

* KAIST, School of Digital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Social Sciences, Master’s student. (First Author)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ultural Informatics, Assistant Professor. (Co–Author)

*** KAIST, School of Digital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Social Sciences,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